

〈人物紹介〉

愚石 李昌九 博士

徐 承 德*

李昌九先生任은 1904 年 태생으로 올해 77 세의 고령장수하시는 분으로 韓國農工學의 誕生과 함께 初創期를 이끌어 오늘의 農工學을 農業의 生産基盤에 올려 놓으신 農工學界 特히 農業土木界의 元老이자 權威者이신 同時에 農業土木秘史를 들 간직하신 山證人이기도 하다. 京畿道 龍仁의 農村胎生으로 현 경기 고등학교 전신인 경기중학을 거쳐 日帝治下에서 平素에 느끼신 生覺과 信念이 있어 서울大農大 前身인 水原高農에 入學하시어 1928 年 卒業과 同時에 최초로 받은 근무지가 忠南 溫陽郡廳 建設課이었으며 이때 처음으로 온양의 河川堤防工事로써 첫 근무작품을 내놓으셨다고 한다.

그후 全北 東津水利組合(現 農地改良組合)에서 一年餘를 設計施工事業을 맡아 우남저수지라는 灌溉堰으로써는 全國 有數한 貯水地를 施工完成함으로써 灌溉事業에 정진하시게 되었고 그때 韓國人으로써는 4 名の 技術者만이 韓國을 代表한 에리프의 役割을 하였고 한다. 그후 咸興農地改良組合에서 근무하시다가 後進들의 農業土木分野 實業教育에 뜻이 있어 咸南北靑 農業學校에서 10 餘個星霜을 教育事業에 專念하시다가 1940 年에 잠시 쉬고 300 餘町步의 農場을 경영하면서 只今の 美湖川(忠北 淸州流域)에 둑을 막아 揚水灌溉하는 水利事業에 새로운 轉期를 마련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全國에 散在하여 不實과 名目만으로 水利事業을 통하여 불합리한 水稅 부과등 非理에 짓어가는 全國 600 餘個의 水利組合을 뜻이있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主導하여 190 餘個의 水利組合으로 統廢合하는 一大 農地改良改革事業에 着手하여 오늘의 농지개발사업 운영 安定基調의 발판을 세워놓으시기도 하였다.

農地改良을 위한 灌溉水利事業의 基盤造成, 不合理

한 農組의 統廢合의 制度改革과 後進의 實業教育進與을 통하여 23 個星霜을 진정 農業土木事業의 水利灌溉分野에서 눈부신 活躍과 산 經驗을 쌓으시고 實質의인 경험지식을 高等教育에 불 붙이기 위하여 40 代後半을 장식하며 一生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知識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當時 48 歲(1952 年)의 나이로 母校인 서울大 農大 農工學科에 赴任하시어 1970 年 65 歲의 停年까지 18 個星霜의 教育和 研究生活을 통하여 18 回의 卒業回數에서 1,000 餘名の 제자를 길러 社會의 구석구석에 배출시켰으니 그 은혜 숫자로 헤아릴수 없으리라. 선생님께서는 農業水利, 水利構造學, 耕地整理, 開墾于拓學, 土地改良法規등 農業用水를 基準한 灌溉排水學 및 水利施設工學등의 農工學의 정통과 목을 맡아 하였고 教育和 實務의 經驗이 풍부함으로써 산知識을 傳達할 수 있었으며 學生들을 위한 親近感을 기억력으로 立證하기 위하여 姜氏부터 始作하여 韓氏로 끝나는 30 명의 정원(현재는 40 명정원)을 出席簿없이 全員을 順序대로 暗記하시어 出席點檢하시는데는 4 年을 거처간 농공학과 졸업생은 하나같이 그분의 기억력과 친근감에 입모아 꽃을 피운다. 얼마나 親切하신 스승이였는가? 卒業生의 就業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취업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추천되어 결정된 자는 여타 자유경쟁시험등에도 절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아직 未就된 제자와 경쟁이 안되게하여 모든 제자가 고르게 취직케하는 제자에 대한 均愛精神이 남달리 투철하시어 감격적이기도하다. “나는 이에 한번 회생을 맛본 사람이어” 그뒤 원망을 하였더니 徐君도 那終에 그린 경험에 처할때가 있으리라 하셨던 예언이 사실대로 수일전에 나의 제자추천에 바로 이같은 일을 겪은 사실로써 지금도 그때의 선생님의 하신일이 妥當 하였음

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농공학의 重要性과 전국 지역별에 농공학의 필요성을 要路에 進言하여 지방대학의 농공학과 시설에 산파역을 主導하셨고 또한 母校에서도 美國의 Mine-sota 대학과의 緊密한 연락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험실습기재등의 협조지원 成就, 외곽시설의 확충, 교수의 해외유학을 통하여 석사, 박사등의 학위취득에 박차를 가했으며 또한 석, 박사과정의 대학원을 신설하여 대학원교육에도 농공학 분야의 최 선구역할을 담당하시었다.

한편으로는 農工技術의 本山인 農業振興公社의 技術자문역, 설계심사위원, 농수산부의 농지정책분야 입산자문위원, 고등학교 기술교육의 교육정책연구원, 기술분야 국가공무원 신규, 특채 및 승진시험 위원으로 그리고 기술사 자격시험제 설치당시의 산파역과 시험위원을 거쳐 초창기의 기술사회 회장직을 역임 하시었다.

1963 년대의 농공학회 회장직을 맡아 하시다가 지금은 고문직에 계시고 동창간의 포용력과 人品, 그리고 지도력이 인정되어 1972 년 때에는 농과대학 18 개 학과를 총망라한 總同窓會長職을 역임하는 중책도 맡아하시어 농공학뿐 아니라 농학전체 그리고 토목분야에 이르기 까지 두루 이분의 이모저모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남을 위한 눈부신 일에 執着하시다가 진작당신의 자격에는 소홀히 하시어 교수의 최고자적인 박사학위를 1970 년 2 월 모교에서 農業用水의 節水灌溉效果分野에서 논문을 이루어 정년과 함께 학위를 획득함으로써 학위로써는 晚得의 感이 서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지도하에 학위를 획득했으니 정작 누가 이분의 학위를 심사하리오, 생각하니 晚得의 뜻이 오히려 큰 빛을 내지 않는가? 이로부터 農地改良事業界에서는 節水灌溉와 增收效果의 신기원을 이루어 現業界에서의 利用과 찬사가 至大하였으니 산 知識의 전달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가 1967~68 년의 영호남의 大旱魃時에는 농수산부의 위촉으로 현직전문분야 교수로써 현지에 오시어 기술자를 격려하시고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결론으로 貯水容量이 不足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수리시설의 보수관리에 크

게 시정대책을 주기도 하셨다.

연구와 教育, 그리고 現業의 자문역으로 농공학분야의 산 증인으로 살아오셨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논문, 기술자료, 기술정책, 기술홍보등 50 여편의 학술을 학술지, 機關誌, 日刊紙, 研究보고서 등등에 기고하셨고 農業工學, 댐의 계획과 설계, 댐공학, 개간경지정리등 많은 著書를 남기셨으며, 이러한 공로로 국가 포상 규정에 따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으셨으며, 정년후에도 實力과 健康이 인정되어 官界의 자문의원, 사단법인체 및 학회등의 고문, 實務研究 및 現業機關 및 기업체의 기술고문, 연구기관등의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의 심의위원을 맡아하시며 최근까지 기술사 회장직도 맡아 하신바 있으며 지금은 학술분야의 최고 심의기관인 學術院 會員으로 1974 년부터 受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공학회나 학술대회가 전국 어데서든지 개최되면 老驥에도 不拘하고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주시고 학회활동에 무성의한 젊은 회원에 크게 경종을 주시며 학문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 귀감이 되게 하신다.

끝으로 선생님은 사모님과 해로하시면서 슬하에는 多男多女하시어 이들 모두가 서울대 의대, 법대, 가정대 등 서울대通을 이어 개업의와 관직에 있고 사위는 군 고급장교를 거쳐 지금은 국가기업체의 중역에 있는 분도 있다. 이렇듯 모두 成嫁하여 선생님 內外分만이 서울여의도 三益아파트 A동 708 호에서 조출하게 생활하시면서 가끔 만나뵙는 아드님과 따님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반기는 일에 老驥의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신다며 또 시내의 나들이(자문회의, 고문회의, 심의회의, 제자들이 베푸는 소연, 아들 딸들의 외식 대접 등)도 가끔 있어 아주 한가하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신다.

농공학분야 특히 농업토목의 농업용수분야에서 1928 년부터 50 여년을 한결같이 외곽수로 연구하시고, 후진을 교육하시고, 일선기술자를 지도하시고 제신 巖石李昌九 先生任의 玉体和 師母任을 비롯한 온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두손모아 기원하면서 부족한 제자가 스승을 기리는 마음의 일단에 붓을 놓는다.